

## The Keyword XIV.

### '믿음(Faith)' - 믿음의 싸움은 결국 내면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

#### 1. 프리솔로(자유단독 등반가, Free solo climbing) '알렉스 호놀도(Alex Honnold)' 의 이야기

그가 목숨을 걸고 프리솔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인터뷰와 저서 (alone the wall)에서 몇 가지 이유를 말한다.

##### ㄱ) 무모하지 않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 로프를 이용해 코스를 반복해서 오르고 끊임없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 컨디션이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한다.

##### ㄴ) 부단히 노력한다

: 자신보다 훌륭한 등반가가 많다고 인정한다. 더 배우고 노력하고 체력을 키운다.

##### ㄷ) 자신을 믿는다

: 평소 연습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 ㄹ) 끝까지 서두르지 않는다

: 정상에 도착해서도 차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모한 움직임은 하지 않는다. 언제나 침착하다.

##### ㅁ) 지금에 집중한다

: 등반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등반에만 집중한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절벽을 오르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반복의 연습을 완벽히 한다. 그 이유는 하나이다. 완벽한 연습만이 자신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등반에 성공할 자신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다. 그가 로프없이 절벽을 오르는 그 순간 믿을 것은 자신 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한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없다. 완벽해야 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가 자신이 이 세상에 실존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 2. 믿음의 등반

성도의 믿음도 프리솔로 등반가와 같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결국 '확신'이 중요하다. 알렉스 호놀도처럼 나와서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믿음은 확신의 문제이고, 그 확신을 갖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 (1) 확신없는 '나'

왜 믿음이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키워드인가? 왜냐하면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다.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그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당황한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네가 믿느냐?" 라는 것이다. "지금 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네가 믿느냐?"라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

[요한복음 11:23-27]

23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25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26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1:42]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다. 죽은 나사로의 문제를 마르다에게 선포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그녀가 알고있는 말씀의 내용을 따라 죽은 후의 부활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것은 죽어서 일어날 기적이 아니다. 살아서 믿는 자에게 일어날 기적이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현재형으로 물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적을 죽어서가 아니라 현재에서 경험한 것이다. 결국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이미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 (2) 산을 옮기는 믿음

[마태복음 17:19-20]

19 그 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귀신을 예수님처럼 쫓아내지 못한 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로 대답을 하신다. 믿음이 적다는 것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산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력으로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는가?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산을 돌던, 소리쳐 선포하던,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과정의 문제가 아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단순하게 믿을 수 있다. 백부장 사건을 보라. 과정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났다.



### (3) 믿음은 주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믿음은 완료형의 사건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나를 완료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미 완성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완료형의 믿음'이다.

### 3. 두려움의 산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문제는, 보이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이다.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나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눈처럼, 귀처럼 보고 듣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죄는 무엇인가? 완전한 하나님으로 부터의 단절이다. 단절된 영역이 어두움의 공간을 만들었고, 그 어두움이 두려움이 되어 나를 덮어 버렸다. 완전한 분과의 단절은 내 안의 연합함을 보게 했고, 연합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려움의 존재일 뿐이다. 풍량이 오면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량에 잠식 당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량을 잠잠하게 했다. 왜 가능한가? 이미 그 모습은 죄를 짓기 전, 첫번째 아담의 모습이다. 모든 만물이 아담 앞에 순종했다. 아담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죄로 실패한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되었으며, 그 때부터 다스려야 할 피조물로부터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내가 올라야 할 산은 내 안에 두려움으로 존재한다.

### 4.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지배 당하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최악의 산을 완전히 옮기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번째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 실패한 첫째 아들의 모습을 대신하셨다. 이 일이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한다.

[로마서 8:19]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개역개정)

19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번역)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원래대로 자신을 다시 다스려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지배당하도록 되어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단계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풍량이 잠잠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기 때문이다. 원래의 주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 5.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자. 나아가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람은 간절함을 말한다. 간절히 보고자 하는 자가 본다. 듣고자 하는 자가 듣는다. 내 앞에 있는 산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른다. 간절함으로 바람을 확실하게 하자. 그 바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